



하느님을 보여드린 사람, 사람의 길을 보여주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2,23)

신비이신 분께서, 그래서 참으로 멀리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감히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하느님(탈출 33,19-20 참조)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마태 3,15)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느 사람”(필립 2,7)처럼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다. 그분께서 받으신 세례는 단순한 정화예식이 아니다. 하느님의 모든 의로움, 즉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표징이다.(마태 3,15참조)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마태 3,16)

예수님의 세례로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으로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마태 6,9-15 참조) 구원활동이 시작된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하느님과 인간이 소통하게 된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신비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린 것이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하늘은 선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시편 2,6-12 참조) 그러나 하느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시다.(이사야 42,1 이하 참조) 그분께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신 이유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마르 10,45) 오신 하느님께서 당신이 받으신 세례, 물과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느님의 영으로 숨 쉬시며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삶,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셨듯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 주신다.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을 밝히 보여드려야 한다.





서시몬 시몬 신부

찬미예수님! 저는 진영성당의 서시몬 시몬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 애써 주신 주교님을 비롯한 선배 신부님들과 많은 교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우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기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듯 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히브 5,1) 제가 이 말씀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만 가능하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안에 사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요한 2,6)함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막 사제가 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현석 엑스수페리오 신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제서품을 받은 석전동성당 조현석 엑스수페리오입니다. 먼저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많은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품을 앞두고 사제직의 모토인 성구를 정함에 있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오복음 9장 10절, “자리를 함께하셨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만난 하느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태오 사도를 부르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임마누엘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이지만 하느님께서 이런 저마저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주시고, 더 아프고 병든 이들과도 함께하기를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하느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이끌리어 저 또한 그들의 자리로 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제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더 아파야하고 병들어 가는 이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의 사제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직무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제라는 직무와 함께 먼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도 충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 율리아노 신부

찬미 예수님! 김동운 율리아노 새 신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사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주신 교구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토빗 12,6) 하느님께서 제가 청하기도 전에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의 온 생애에 걸쳐 하느님께서 저에게 하신 좋은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제가 만난 하느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너무도 미약한 저이기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만남을 위한 다리가 되는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이 하느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마산교구 사제로 서품된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새 신부입니다. 제가 사제로 서품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스스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물음 속에서 주님께서 다양한 성인들의 모범을 거울삼아 제 모습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인은 스스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에, 끊임없이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그분을 찾아 나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저에게 다가온 성서 구절은 바로 쌍둥이라 부린 토마스 사도의 신앙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8)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서야 터져 나왔던 사도의 고백은 저에게 단순히 주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마지막까지 찾고자 했던 사도의 영적 투쟁의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은 저로 하여금 “어떻게 불완전한 한 인간의 모습이 주님을 찾으려는 열정을 만나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제 부족함의 크기가 당신을 향한 열정의 크기가 되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당신을 더 잘 드러내실 수 있는 공간 곧, 당신의 거룩함을 전달하는 도구 ‘사제(Sacer-dos)’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 퇴 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사제직을 마무리하는 신부님의 은퇴식을 마련하였사오니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성학(아브라함) 신부

- 일시: 2020년 1월 12일(주일) 10:30
- 장소: 천주교 마산교구 태평동성당

약 력

1969~1977 대건신학대학교
1977. 12. 28. 사제품
1978~1979 남성동 보좌
1979~1982 남해성당 주임
1982~1985 문산성당 주임
1985~1988 여좌동성당 주임
1988~1992 중동성당 주임
1992~1995 봉곡동성당 주임
1995~2000 가음동성당 주임
2000~2003 옥포성당 주임
2003~2007 상평동성당 주임
2007~2009 장재동성당 주임
2009~2014 양덕동성당 주임
2014~2017 창녕성당 주임
2017~현재 태평동성당 주임



황봉철(베드로) 신부

- 일시: 2020년 1월 12일(주일) 10:30
- 장소: 천주교 마산교구 창녕성당

약 력

1970~1976 대건신학대학교
1976~1985 유학(인스브룩 대학교)
1980. 06. 27. 사제품
1985. 10. 19. 성서신학 박사학위 취득
1986~1988 하동성당 주임
1988~1990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990~1993 거창성당 주임
1993~1998 구암동성당 주임
1998~2002 중앙동성당 주임
2002~2005 용암성당 주임
2005~2011 옥봉동성당 주임
2011~2016 고성성당 주임
2017~현재 창녕성당 주임

사도행전 읽기 2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난 호에서는 사도행전을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서에 이어진 이야기로 루카 복음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호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0일간의 부활 발현과 예수 승천

사도행전에서 루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과 승천 사건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파스카, 곧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그분의 지상 활동을 가시적으로 마감하는 사건으로 부활에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과 관련된 마지막 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복음서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발현했다고 전한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의미

심장하다. 40일이라는 이 시기는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시기로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활에 들어가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간 유혹을 받은 사건(루카 4,1-13)을 떠올려 준다. 아울러,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간 광야에서 준비시켜 주는데(민수 14,34; 예제 4,6), 40일간의 부활 발현은 제자들이 새로운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는 기간이라 하겠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언했던 바대로(루카 3,16)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도 1,8이 이야기하듯이 성령께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오르시는데,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다.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해 승천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고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시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예고다. 사도 1,12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장소가 올리브산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재림하시리라 믿어 왔다.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당신의 왕권을 드러내시리라 여겼던 것이다. 이는 즈카 14,4-2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맥상통한다.

이 이야기를 전한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며 두 명이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기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 속한 천사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명이라는 점은 유다인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참된 증언임을 드러낸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두 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 믿을 만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복음서에서 이미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루카 24,4-7)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금 흰옷을 입은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은 여기서 다루는 모든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

올리브 산을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간 제자들은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는데,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무리는 백스무 명 가량되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열한 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활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이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힌 것과 빈 무덤 사건에 관한 증인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은 모두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에 관한 증인이다.(루카 1-2장) 그리고 복음서는 그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쓰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주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분은 갈라 1,19에서 언급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야고보인지에 관해서는 전승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의 기둥으로까지 여겨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갈라 2,9에서 바오로는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름의 순서에서 제자들 가운데 수장인 베드로 앞에 야고보가 놓인 것을 보면 그가 주님의 형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여기서 언급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주님의 형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어왔다. 먼저, 이 야고보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과 아버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사촌이나 혹은 친척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오늘날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첫 주교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이들이 읽어 왔던 『야고보 원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요셉이 전처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전처와 사별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오늘날 동방 교회는 『야고보 원복음서』에 따라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성령을 기다리며: 유다를 대신하는 마티아

사도 1,15-26은 배반자 유다로 인해 11명이 된 제자들이 어떻게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마티아라는 인물이 뽑혔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명이라는 제자단의 숫자가 채워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사도 1,15는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열두번 째 제자를 뽑자는 제안을 할 때 그 주변에 모여 있던 이들도 모두 120명 가량 되었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12라는 숫자는 백성들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숫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구약성경에서 레위 지파가 하느님을 섬기는 임무를 띠게 되어 약속된 땅을 12로 나눌 수 없게 되자 요셉의 아들인 에프라힘과 므나세를 각각 한 지파로 쳐서 12지파로 나눈 바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열한 명의 사도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사실, 마티아는 사도행전에서 2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열두번 째 제자를 채우기 위한 과정은 제비뽑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다. 곧, 사람이 뽑아 세우기는 하지만, 결국 하느님이 선택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마티아가 뽑히면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하느님에 의해 완성되어 성령 강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



알림



기억할 선종 사제
이억민(바오로) 신부
1996년 1월 17일



교구장 동정

200차 ME 주말 미사

일시: 1월 12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꾸르실료 강의

일시: 1월 17일(금)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사제 은퇴식

허성학 아브라함 신부
일시: 1월 12일(주일) 10:30
장소: 태평동성당
황봉철 베드로 신부
일시: 1월 12일(주일) 10:30
장소: 창녕성당

교구 성경봉사자 집중교육 3일

일시: 1월 13일(월)~15일(수)
장소: 교구청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인수인계

일시: 1월 14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전국 사목국장 회의

일시: 1월 14일(화)~15일(수) 1박2일
장소: CBCK

전국 사회복지, 사회사목국장 회의

일시: 1월 14일(화)
장소: CBCK

전국 관리국장 회의

일시: 1월 16일(목)
장소: CBCK

전국 사무처장 회의

일시: 1월 17일(금)
장소: CBCK

제446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1월 19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월 29일(수) 10: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청소년 성교육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일시: 기본교육 2월 1일(토)~2일(주일)
심화교육 2월 29일(토) 09:30~18:0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인원: 선착순 36명
참가비: 11만 원(농협 301-0003-8497-31(재)마산
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청방법: <http://familia.cathms.kr> 신청서 다
운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Fax.
055·249·7100, gasamok2@cathms.or.kr)
마감: 1월 24일(금) 18:00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월 기도모임

일시: 1월 13일(월)
성체조배 11:00, 13:00
미사 및 강의 13:40 (이청준 신부)
장소: 옥봉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문의: 010·3903·8234

소년단원 야외행사

일시: 1월 14일(화)~15일(수) 1박2일
장소: 제주도
문의: 레지아 055·249·7115

교구 여성협의회 총회

일시: 1월 14일(화) 10:00
장소: 교구청
문의: 회장 010·3476·0372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월 15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61·8201

231차 남성꾸르실료

일시: 1월 16일(목)~19일(주일) 3박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꾸르실료 055·249·7113

교구 전례꽃이회 월모임

일시: 1월 16일(화) 11:00
장소: 교구청 (미사와 점심식사)
문의: 담당자 010·9841·8191

교육위원 및 꼬미시움 단장, 꾸리아 단장 연수

일시: 1월 18일(토)~19일(주일) 1박2일
장소: 산청 성심원
문의: 레지아 055·249·7115

마리아사제운동 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월기도

일시: 1월 20일(월) 13:00~15:00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매(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매(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매(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매(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매(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매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매 1, 3주(토) 19:30/ 국산공소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3월 28일	청년 이스라엘 순례(1980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9일	349 만원
4월 21일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9 만원
4월 28일	성모발현지	13일	410 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일림

동티모르 미사

통영: 매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매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매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2020년 살레시오 수도회 겨울 성소대피정

대상: 예비 고3, 성인 일반(만 33세 이하)
일시: 2020년 1월 31일(금)~2월 2일(주일)
장소: 돈보스코청소년센터(서울 여의대방로 65)
문의: 010·5159·3949, 010·3894·1332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기타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3071

2020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070~1
www.jjscen.or.kr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29회 겨울음악학교

일시: 2월 6일(목)~8일(토)
장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대림과 성탄 전례 및 전례 특송곡
신청: 1월 30일(목)
문의: 051·517·8241~2 www.bcmusic.or.kr

제주 성지 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2/26-28, 3/20-22, 3/24-26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년 3월 2일 그리스, 터키 12일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3급 자격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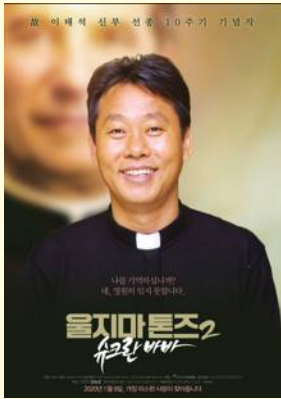
주관: 마산교구가톨릭상담심리학회
과정: 3급 1·3주 (토)09:00~16:00 3월 7일 (토) 개강
2급 2·4주(토)09:00~16:00 3월 14일 (토) 개강
장소: 함안 '우리농 교육장'
수강료: 30만 원(하나은행 160-890028-51604
(재)천주교마산교구유지재단)

마감: 1월 17일(금)

문의: 070·8877·3217, mscps@hanmail.net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영화 "울지마 톤즈2: 슈크란 바바" 관람 안내

고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 기념작

KBS와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2:슈크란 바바>가 1월 9일(목)에 개봉하였습니다.

단체 관람 문의: (주)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070·7500·7383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월 13일(월) 19:00	월남동성당	주님안의 변화된 삶	김태호(빛과 소금, 삼성산 찬미단)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1월 13일(월) 19:00	반송성당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최재상 신부(마티아)	최재상 신부	010·9421·3377
진해지구	1월 13일(월) 19:00	중앙성당	나는 믿나이다(사도신경)	정철현 신부(바오로)	정철현 신부	010·7566·9441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 18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있는 젊은이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4/20,5/6(299만원) ◆ 이탈리아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가톨릭신문 투어 ▶ 2/15 이탈리아 프랑스 12일 420만원 ▶ 2/28 유럽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 3/9 발칸반도(메주교리에) 12일 355만원 ▶ 3/12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3/15 사부자중해 크루즈 10일 399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회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정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	--	---	---



2020 교구 사제 정기인사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허성학	원로사목자	태평동 주임
최봉원	총대리 겸 사무처장	덕산동 주임
배진구	명서동 주임	칠원 주임
황봉철	원로사목자	창녕 주임
허철수	가좌동 주임	진영 주임
노영환	진영 주임	함안 주임
김순곤	안식년	사천 주임
조명래	덕산동 주임	봉곡동 주임
박창균	월남동 주임	총대리 겸 사무처장
이학울	나자렛 예수 수녀회	부산가톨릭대학교
채동호	안식년	해외선교·교포사목(미국 덴버)
이성렬	휴양	안식년
이재열	안식년	진교 주임
함영권	안식년	삼천포 주임
김국진	봉곡동 주임	호계 주임
이청준	기획관리국장	마산가톨릭교육관장
김대열	옥포 주임	상평동 주임
남영철	상평동 주임	하청 주임
백남해	진교 주임	사회복지국장
박호철	진례 주임	월영 주임
최재상	창녕 주임	명서동 주임
정진국	마산가톨릭교육관장	월남동 주임
최 훈	사회복지국장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훈(라)	해외선교·교포사목(미국 덴버)	옥포 주임
강철현	월영 주임	기획관리국장
이현우	칠원 주임	가정사목국장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전병이	거제지구 성지담당	진례 주임
박인수	함안 주임	안식년
최태준	산청 주임	휴 양
이 민	대건 주임	합천 주임
최태식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대건 주임
김형렬	하청 주임	가좌동 주임
박재우	파티마병원 담당	안식년
전주홍	사천 주임	파티마병원 담당
신명균	태평동 주임	어학연수(베트남)
이동진	사목국 차장 (직제개편으로 신설)	마산·창원지구 청년사목담당 겸 성지여중고 교목
정윤희	호계 주임	거제지구 성지담당
손권중	거제 주임	산청 주임
이강현	삼천포 주임	거제 주임
변종원	광주가톨릭대학교	그라츠 현지사목
주호상	청소년국 차장 (직제개편으로 신설)	진주·거제 청년사목담당 겸 진주지역 병원사목
장성근	합천 주임	사파동 1보좌
박종선	사파동 1보좌	양덕동 보좌
임성섭	중동 보좌	옥포 보좌
서성민	고현 보좌	반송 보좌
이시몬	반송 1보좌	고현 보좌
김유태	양덕동 보좌	대방동 보좌
김승태	군중 대기	월영 보좌
허기원	옥포 보좌	중동 보좌
주경환	명서동 보좌	사파동 2보좌
정재덕	해외선교·교포사목(미국 성삼 보좌)	명서동 보좌

새사제 인사 이동

사 제 명	부 임 지	비 고
서 시 몬	사파동 2보좌	진영본당 출신
조 현 석	대방동 보좌	석전동본당 출신
이 승 언	유학(독일)	덕산동본당 출신
김 동 윤	반송 2보좌	호계본당 출신

■인수인계일

2020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4층

■부임일

2020년 1월 17일(금)까지

■교구청 조직 개편

2020년 1월 3일 참사회 결의에 따라, 가정사목국은 2020년 1월 6일부터 사목국으로 통합되어, 사목국 가정사목부가 되었습니다.



제 1 독 서 이사 42,1-4,6-7
화 답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 서 사도 10,34-38
복 음 마태 3,13-17

주일 진례